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드

Global Supply Chain Insight

금주의 공급망 Insight

○ 최신 공급망 해외 이슈

- 【희토류, 일본】 中 희토기술 수출 규제 강화에 따른 日 시장 동향 및 업계 대응
- 【반도체, 일본】 日 혼다, 대만 TSMC와 차량 탑재용 반도체 조달 협력 발표
- 【수출금지, G7】 EU·일본, 美 제안한 'G7 대러 수출 전면 금지안'에 반발
- 【무역, 중국】 中 국무원, '대외무역 규모안정·구조개선 의견' 발표
- 【반도체, 독일·중국】 독일, 반도체 화학물질 대중 수출 제재 검토
- 【반도체, 독일】 獨 보쉬, 美 TSI반도체 인수 및 SiC 반도체 제조 투자
- 【친환경, 미국】 美 바이든 대통령 MEF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촉구
- 【친환경, EU】 EU 내연기관 규제로 합성연료·바이오연료 관심 대두
- 【에너지, EU】 유럽 9개국, 북해 해상 풍력 300GW 확대 공동 협력 추진

○ 공급망 뉴스 더하기

- ① IEA, '23년 전기차 판매 전망 보고서 발표(4.25)

○ 공급망 돌보기

- ① EU의 지속가능한 배터리법 최종수정안
- ② EU의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대한 IEA의 전망

○ 공급망 소식통

- ① 2023 GP 유럽 참가기업 모집 안내
- ② 한국무역협회 지원사업 소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 최신 공급망 해외 이슈

■ [희토류, 일본] 中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에 따른 日 시장 동향 및 업계 대응

- 4.5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中 상무부가 '22.12월 발표한 <중국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에 대해 '23.1월 의견수렴을 마치고 금년 내 시행 예정이며, 개정안에는 '희토류 제련, 가공 및 활용기술'을 포함시켜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 통제 강화 전망
 - 관련하여 마쓰노 히로카즈 日 관방장관은 “일본으로서는 중요 광물 등 물자 공급망 강화에 노력할 것이며, 중국에 의한 제도의 영향을 주시하겠다”고 언급
 - 日 언론 및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영향이 제한적이나, 유력한 제조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미국·유럽에는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존재
- 日 정부·기업은 중희토류 권익확보 등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의 공급망을 구축 중이며, 日 주요 자동차 제조사는 전동차 구동용 모터에 희토류 사용 감축 본격화
 - 닛산자동차는 SUV 타입의 EV '아리아'에 영구자석을 사용하지 않는 권선계자형 모터(WSRM, Wound Rotor Synchronous Motor)를 실용화하여 '25년에는 중희토류 사용량을 1% 미만으로 낮추는 영구자석식 동기모터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스즈자동차는 신형 EV '엘프'에 영구자석이 없는 유도 모터 사용

출처: 일본 경제 브리핑 제7호 등 KOTRA 도쿄무역관 종합

■ [반도체, 일본] 日 혼다, 대만 TSMC와 차량 탑재용 반도체 조달 협력 발표

- 4.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日 자동차기업 혼다(HONDA)가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와 차량용 반도체 조달 협력을 체결했다고 보도
 - 혼다는 TSMC와 협업을 통해 '25년 이후 TSMC로부터 조달하는 반도체를 혼다 차량 시스템에 도입하고, 향후 첨단 반도체 개발 협력도 검토할 예정
 - 혼다가 이전에는 부품업체 등 거래처를 통해 대부분의 차량용 반도체를 조달해 왔으나, 앞으로는 TSMC와의 직접 거래를 통해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것이라고 설명
- 혼다는 '30년까지 연간 200만 대 이상의 전기차 생산계획을 발표했으며, '40년에는 전 세계 신차 판매를 모두 전기차와 연료전지차(FCV)로 전환하는 등 전기차 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공급망 재구축 진행
 - 4.12일 혼다는 포스코그룹과 전기차 배터리 소재 조달·재활용 협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차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양해각서(MOU) 체결
 - 또한, 혼다는 '25년 말 양산 개시를 목표로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연간 생산 능력 40GWh 규모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공사에 착수

출처: 조선비즈('23.04.26), 연합뉴스('23.04.27)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수출금지, G7] EU·일본, 美 제안한 'G7 대러 수출 전면 금지안'에 반발

- 4.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는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EU·일본이 美가 제안한 G7 대러 수출 전면 금지 방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
 - G7 정상회의 성명 초안에는 농업·의료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대러 수출을 금지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새로운 제재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
 - 27개 회원국을 보유한 EU에서는 새로운 제재안이 EU 내부적 논쟁을 불러일으켜 기존 제재안의 효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대러 제재 패키지 시행을 위해서는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 합의 도출 어려움)
 - 일본은 대러 수출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나, 3.31일(현지시간) 철강, 건설기계·부품, 무인기, 항공기·우주 비행체·부품, 항공기용·선박용 엔진 등 수출 제한 품목을 추가 확대한 바 있음
- 같은 날(4.24일), 韓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을 통해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를 강화했으며, 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 57개 → 798개로 대폭 확대
 - * 상황허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 필요
 - 기존 수출통제 대상인 전자, 조선 등 57개 품목에 더해 반도체, 자동차(단, 완성차는 5만 달러 초과 시에만 적용), 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등 상황허가 품목 741개가 추가되어 총 798개로 확대

출처: 파이낸셜타임스(23.04.24), 헤럴드경제(23.04.24)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무역, 중국] 中 국무원, '대외무역 규모안정·구조개선 의견' 발표

- 4.25일 中 국무원 판공청은 <대외무역 규모안정 및 구조개선 관련 의견>에서 △성장 및 고용 안정, △新발전 구도 구축, △고품질발전 추진 등을 통해 수출입 안정화 및 질적 제고를 실현해야 함을 강조
- 주로 △무역시장 확대, △주요 상품 수출입 규모 확대, △재정·금융 지원 강화, △무역의 혁신적 발전, △무역 발전환경개선 등 5가지 측면에서 정책·조치를 제시했으며, 주요 조치는 아래와 같음
 - (국가간 비즈니스 인원 왕래 원활화) 외국 바이어의 중국비자 신청 시 편의 제공, 출발지(중국행) 방역 조치 개선방안 연구, 국제 항공편의 안정적인 운항 재개, 중국-외국 항공사의 운항 재개 및 항공편 증편 추진 등을 통한 기업인의 항공편 이용 왕래 보장
 - (선진 기술설비 수입 확대) 수입 장려 기술·상품 리스트 신속 개정, 기업이 수입을 위한 대출 진행시 이자할인 조치 시행, 기업에 대해 중국 내 부족한 선진 기술설비 수입 확대 유도
 - (국외의 불합리한 무역제한조치 대응) 지방정부 및 무역기업에 대한 교육·지도 강화, 조기경보 시스템 및 법률 서비스 기제 역할 발휘, 단계별 무역분쟁 업무처리소의 서비스 능력 제고, 불합리한 무역제한 조치에 대한 기업 대응 지원, 무역촉진기관의 역할 발휘
 - (FTA 효과적 활용) 기 발효된 FTA의 높은 수준 시행, 주요 업종 관련 지침 발표, RCEP 등에 대한 주제교육 진행 등

출처: 주중한국대사관 중국 주요경제동향(23.04.27)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반도체, 독일·중국] 독일, 반도체 화학물질 대중 수출 제재 검토

- 지난 04.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반도체 화학물질의 對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을 협의 중임
- 고성능 반도체 제조용 상품·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로 반도체 화학물질 수출 제재를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 수준임
- 제재 시행 방안으로는 반도체 화학물질을 이중용도품목 리스트에 올리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음
 - * 이중용도품목(Dual-Use Items): 민간용으로 제조·개발되었지만 군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품목으로, 군수품과 함께 전략물자에 포함되며 수출입 시 허가가 필요함
- 동 조치가 시행될 시 머크(Merk KGaA)나 바스프(BASF) 등 세계적인 독일 화학기업의 對중국 반도체 화학물질 판매가 제한되고, 중국의 고성능 반도체 기술개발 및 제조 능력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 * 머크 및 바스프 등은 반도체 제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화학물질을 전 세계 기업에 공급하고 있으며, 수출 제재 검토 소식에 바스프 주가는 4% 이상 하락함

출처: Bloomberg(23.04.27), 한국경제(23.04.28)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

[반도체, 독일] 獨 보쉬, 美 TSI반도체 인수 및 SiC 반도체 제조 투자

-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 업체인 독일 보쉬는 미국 TSI반도체를 인수해 14억유로(약 2조 1,000억원)를 실리콘카바이드(SiC) 반도체 제조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지난 04.26일(현지시간) 발표함
- 보쉬는 미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인근 로즈빌에 위치한 TSI 공장을 개조하여 2026년부터 순면적 1만m²의 실리콘카바이드 반도체 제조 공장을 가동할 계획임
 - * 현재 독일 드레스덴과 로이틀링엔에 각각 보쉬의 반도체 공장이 위치해있으며, 로이틀링엔 공장은 순면적을 3만5,000m²에서 4만4,000m²로 확장 중임
- 연내 관련 경쟁당국의 허가를 받아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며, 보쉬 대변인은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과 캘리포니아주의 지원 규모에 따라 전체 투자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함
- 실리콘카바이드 반도체는 충전 중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전기차의 도달거리를 실리콘 반도체에 비해 6~10% 확장시켜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로 주목받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연 30%씩 성장하고 있음
 - * 독일 반도체 기업 인피니온은 말레이시아에 20억유로(약 3조원)를 투자해 실리콘카바이드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 중이고, 보쉬의 경쟁 업체인 ZF 또한 미국 반도체 기업 올프스피드와 함께 자를란트에 30억유로(약 4조 4,350억원) 규모의 공장을 건립할 계획

출처: 조선비즈(23.04.28)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

[친환경, 미국] 美 바이든 대통령 MEF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촉구

- 4.20일 美 백악관은 MEF(Major Economies Forum)*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팩트시트 발표
 - * MEF(Major Economies Forum): '09년 3월 당시 美 오바마 대통령이 설립한 협의체로, 청정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G20)과 EU, UN 등 참여 중
- 바이든 대통령은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 경제국 포럼(MEF) 정상 회의를 주재하고 회원국 기후변화 대응 동참 촉구

- '30년까지 탄소배출량 50~52% 감축과 1.5°C 제한 목표를 강조했으며, 개도국 지원, 에너지 탈탄소화, 아마존 산림보호, 탄소 포집 등 내용 포함

- (개도국 지원)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긴밀히 협력하고 녹색기후기금(GCF)에 10억 달러 지원
- (에너지 탈탄소화) 전력 및 운송 등 에너지 관련 부문 진전 가속화, IRA 등 무공해 차량의 제조 및 보급 확대와 더불어 EPA 차량 배출 기준 강화 등
- (아마존 산림보호) 브라질 아마존 펀드 지원을 위해 美 의회에 5년간 5억 달러 지원을 요청하고, 산림 손실과 토지 황폐화 중단 요구
- (탄소 포집) 탄소 포집 및 제거 기술 발전을 위한 포집·저장 기술의 보조금 지원 등

출처: U.S. 데일리브리핑 제23-047호 등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친환경, EU] EU 내연기관 규제로 합성연료·바이오연료 관심 대두

- EU 자동차 CO2 규제 개정안에서 합성연료(e-fuel*) 사용 내연기관의 예외적 허용 합의로 합성연료·바이오연료 개발 관심 대두

* e-fuel(electricity-based fuel): 태양광, 풍력 등 천연에너지로 물을 전기 분해해 만든 수소를 이산화탄소·질소 등과 합성해 만든 연료

- 4.14~15일 열린 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 회의에서 내연기관의 친환경적 대안으로 합성연료·바이오연료 모두 인정
- 4.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다국적 자동차 기업 스텔란티스가 자사 28개 내연기관에 합성연료 (e-fuel)*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

- 스텔란티스는 '14년~29년까지 생산하는 유로6*을 적용한 28개의 가솔린 및 디젤 엔진을 대상으로 배기관 배출·엔진 출력·연료 혼합비율 등을 연구 중이며, '25년~'50년까지 유럽 내 CO2 배출량 4억 톤 절감 효과 기대

* 유로6: EU가 신차에 의한 유해 오염 물질의 수준을 줄이기 위해 설정한 여섯 번째 지침

- 합성연료(e-fuel) 개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독일 포르쉐는 '22.4월 e-fuel 생산 설비 개발에 투자를 결정했으며, '22.12월 칠레 하루오니 공장에서 e-fuel 생산에 돌입

- 포르쉐는 파일럿 단계에서 연간 약 13만 리터의 e-fuel 생산을 계획했고, '25년 이후는 연간 5,500만 리터, '27년에는 5억 5,000만 리터까지 생산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

출처: 로이터('23.04.20), 매일신문('23.05.01)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에너지, EU] 유럽 9개국, 북해 해상 풍력 300GW 확대 공동 협력 추진

- 지난 04.24일 벨기에, 덴마크 등 유럽 9개국*은 유럽 에너지 안보 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북해** 해상 풍력 발전 역량을 2030년까지 최소 120GW, 2050년까지 최소 300GW로 확대하는 '오스텐드 선언(Ostend Declaration)'을 발표함

* 벨기에,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아일랜드, 프랑스, 룩셈부르크와 비EU 회원국인 노르웨이 및 영국

** 보스턴컨설팅그룹은 북해가 EU 전체 에너지 수요의 20%, 친환경 수소의 40%를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함

- 신재생에너지 및 전력 연결을 향후 대서양, 켈트 해, 아일랜드 해 등으로 확장, 해상 풍력 발전 전력을 수소 생산과 연결해 유럽 내 북해 비인접 국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기여, 해상 풍력 인프라 보안을 강화하는 등의 방침을 담음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3.0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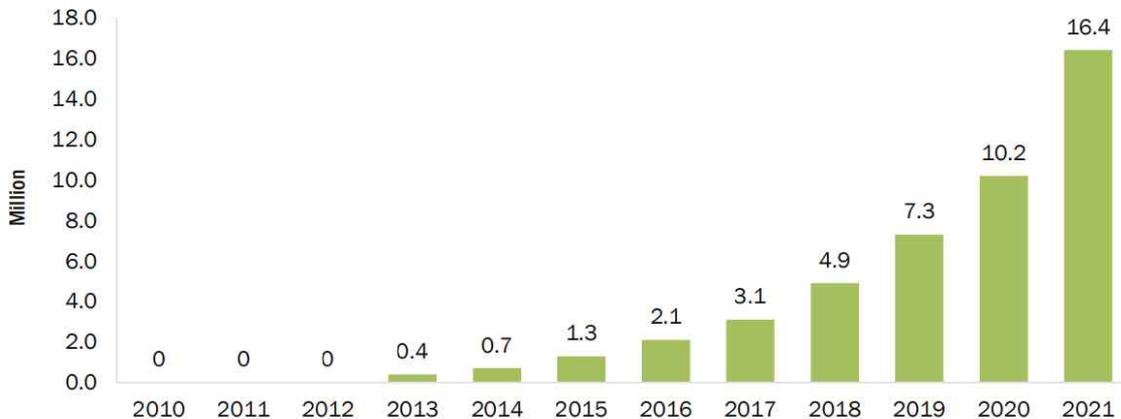
○ 공급망 뉴스 더하기 ① : IEA, '23년 전기차 판매 전망 보고서 발표(4.25)

4.25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연간 글로벌 전기차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23년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자동차 5대 중 1대는 전기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EV)에 탑재되는 배터리 핵심 광물도 주목받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동향에 대해 알아보자.

■ 국제에너지기구(IEA), '연간 글로벌 전기차 판매 전망 보고서' 발표(4.25)

- IEA가 4.25일(현지시간) 공개한 '연간 글로벌 전기차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2년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판매됐으며, '23년 판매량은 35% 증가한 1,4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자동차 5대 중 1대는 전기차가 될 것이며, '23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18%에 달할 것으로 추산
 -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에 따라 '30년 하루 석유 수요가 최소 500만 배럴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현재 전기차 시장 판매의 60%가 중국(1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2위·3위 시장인 유럽·미국에서도 전기차 매출은 지난해 각각 15%, 55% 증가해 강력한 성장세를 보임
 - '30년에는 미국·중국·유럽 시장 내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60%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으며, 美 IRA로 인해 전기차 비율은 10년 이상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보고서는 전기차 시장 추세가 배터리의 생산·공급망에도 긍정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히며, 세계적으로 발표된 배터리 생산 프로젝트는 '23년 전기차 수요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분석

〈글로벌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2010-2021)〉



출처: MarketsandMarkets Analysis('22.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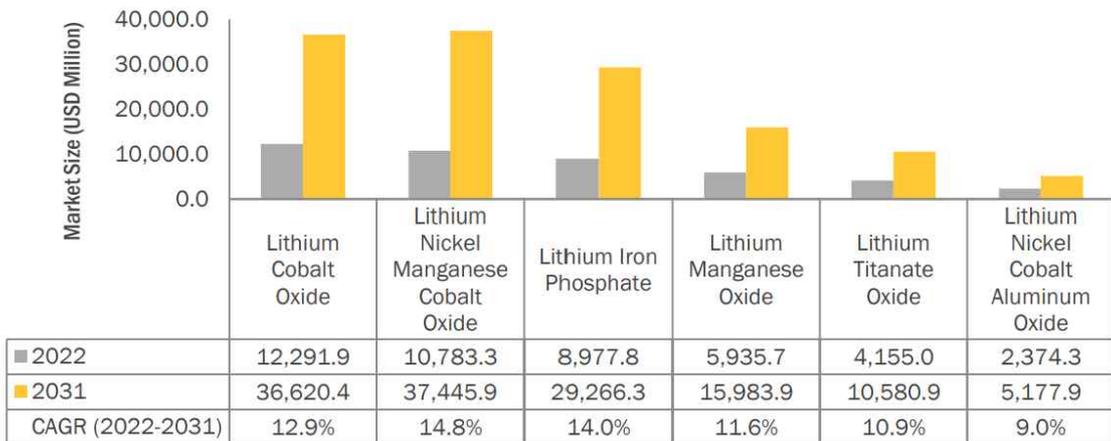
■ 글로벌 EV 핵심 광물 공급망 현황

- 글로벌 배터리 셀 생산은 대부분 韓·中·日 동아시아 3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21년 전 세계적으로 13개* 배터리 제조사가 전체 EV 배터리 셀의 94% 생산

* Argonne National Laboratory 조사('21년)에 따르면, 中(7개), 韓(3개), 日(3개) 총 13개 배터리 제조사가 전체 EV 배터리 셀의 94% 생산

- '21년 중국은 글로벌 EV 배터리 셀 생산 역량의 79% 차지, '31년까지 연간 4,800GWh로 생산 역량에 있어서 최강 지위 유지 전망
 - 중국은 전 세계 음극재 생산의 74%, 양극재 생산의 92%를 담당하고, EV 광물 처리의 60~100%를 차지하는 등 중국 기업들은 배터리·부품 제조, 광물 채굴·가공에 이르는 전체 공급망에서 우월한 위치 점유
 - 글로벌 배터리 생산 역량은 1,035.5GWh('21년) → 4,771.2GWh('26년) → 7,263.4GWh('31년) 이상 급증 전망이며, 전체 대비 중국 생산 역량 비중은 79%('21년) → 71%('26년) → 67%('31년) 전망
- 리튬, 코발트, 망간, 니켈, 흑연은 5대 EV 핵심 광물로 분류되며, 전기차 사양에 따라 다양한 리튬-이온 배터리 셀이 설계될 수 있음
 - 음극재 화학 조합(cathode chemistry)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분류: (1) lithium cobalt oxide(LCO), (2) lithium manganese oxide(LMO), (3) lithium iron phosphate(LFP), (4) lithium nickel cobalt aluminium oxide(NCA), (5) lithium nickel manganese cobalt oxide(NMC), (6) lithium titanate oxide(LTO)

〈'22년 EV 핵심 광물 조합별 배터리 시장 규모 및 '31년 전망〉



출처: MarketsandMarkets Analysis('22.9월)

- '22년 권역별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 규모(USD Million)는 아시아 태평양(19,186.5) > 유럽(13,911.1) > 북미(7,676.4) > 기타(3,744.1)이며, '31년에는 아시아 태평양(63,775.4) > 유럽(41,462.3) > 북미(20,913.4) > 기타(8,924.1)로 확대 전망

〈'22년 권역별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 규모 및 '31년 전망〉



출처: MarketsandMarkets Analysis('22.9월)

○ 공급망 돌보기 : EU의 지속가능한 배터리법 최종수정안

2020년 12월 EU 집행위가 발표한 '새로운 배터리 규정(New Batteries Regulation 2020)*' 초안이 2022년에 EU 3대 기구 간 4차례 삼자 협의를 거쳐 2023년 1월 18일, 최종결과물이 공표되었다. 현재까지의 최종 수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기존의 배터리 지침(EU Batteries Directive 2006)을 개정

■ EU의 지속가능한 배터리법 (EU Sustainable Batteries Regulation) 출처: EU 집행위

- (적용대상) 휴대용 배터리, 용량 2kWh 이상의 전기차 및 산업용 배터리, e-bike 등 LMT(경량운송용) 배터리, SLI 배터리(시동, 점화 등에 사용) 등 거의 모든 배터리를 적용대상으로 확대
- (주요내용) △배터리 회수율 목표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소재별 재활용 비율 △탄소발자국 △배터리 여권 △공급망 실사 이행 등 제시

〈지속가능한 배터리법 주요내용('23.1.18 발표된 최종수정안)〉

배터리 회수율 연도별 목표 제시

- 휴대용 배터리 : ('23) 45%, → ('27) 63% → ('30) 73%
- LMT배터리 : ('28) 51% → ('31) 61%

재활용 원료의 최소 사용비율 설정

- 코발트 16%, 납 85%, 리튬 6%, 니켈 6% (법 발효 후 96개월부터 적용)
- 코발트 26%, 납 85%, 리튬 12%, 니켈 15% (법 발효 후 156개월부터 적용)

원료 광종별 재활용(추출) 달성 목표 제시

- ('27년까지) 코발트, 구리, 납, 니켈의 90%, 리튬의 50%
- ('31년까지) 코발트, 구리, 납, 니켈의 95%, 리튬의 80%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시행

- 배터리의 초생애주기(생산·사용·재사용·재활용·폐기 등) 정보를 배터리 여권에 입력해 이해 관계자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QR코드로 연계(발효 이후 42개월부터)

탄소발자국 공개 의무

- 채굴/생산/재활용 단계에서 배출되는 탄소발자국 제출(발효 후 18개월부터)
- * 탄소발자국 :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량

공급망 실사 시행

- 기업에 실사 관련 정책수립 및 시행 의무 부여. 단, 배터리 재활용 준비기업과 매출 4천만 유로 미만 기업은 제외(발효 24개월부터)

- (향후일정) 이 최종 수정안은 이사회와 의회의 승인을 거친 후 **올 8월 발효***될 것으로 전망

* 출처: 독일의 Battery Pass 프로젝트 운영위원회

- (시사점) 최종 발효될 배터리법은 주요 내용이 상기 최종수정안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므로 **연도별 재활용 비율 목표 및 배터리 여권 관련 준비가 필요**

공급망 돌보기 : EU의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대한 IEA의 전망

IEA는 EU의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중에서 가장 야심찬 목표를 제시한 REPowerEU의 달성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 EU 재생e 목표 시리즈 >

(56호) IEA의 전망

(57호)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EU의 재생e 목표 상향 조정 배경

- EU는 러·우 사태로 인한 유럽 에너지시장 혼란에 대응하여 對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 감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중·단기 종합 계획인 REPowerEU를 수립('22.5월)하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45%로 설정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화석연료 가격의 급등, 전력가격의 인상 및 러시아에 대한 높은 에너지 의존도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켜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가속화
- '27년까지 러시아로부터 화석연료 수입 중단을 목표로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e 비중을 45%까지 확대

EU의 2030년 재생e 목표

- EU는 '18년 개정된 2차 재생에너지지침(RED-II)에서 '30년 재생e 목표를 32%로 설정하였고, 이후 Fit for 55 전략('21년)에서 재생e 목표를 40%로 상향하였고, REPowerEU('22년)에서는 45%까지 확대
- REPowerEU의 목표 45%를 달성하려면, '30년까지 태양광 설비용량은 592GW, 풍력 설비용량은 510GW 확대가 필요
- * '23.3월, EU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는 REPowerEU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RED-II의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32%에서 **42.5%(구속력 있는 목표)로 상향 조정**하였고, 구속력 없는 최대 목표치로 45% 설정

<그간 EU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변화>



2030년 EU의 재생e 목표 달성 가능성 분석

- IEA는 REPowerEU의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기준 시나리오와 가속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전망 기간('22년~'27년) 동안 유럽의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을 분석
- 기준 시나리오(main case) : 현 추세로 국가계획이 진행되고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없는 시나리오
- 가속 시나리오(accelerated case) : 장애요인을 해결하고 기존 국가계획을 보다 빠르게 이행하는 시나리오
- 분석 결과, EU와 회원국들의 추가적인 정책 개선 및 지원책이 이행되지 않으면 REPowerEU의 '30년 재생에너지 목표는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REPowerEU 목표와 IEA 전망(기준 및 가속 시나리오) 비교〉

부문별	REPowerEU 목표 달성을 위한 2030년 재생e 비중	IEA의 2027년 전망	
		기준 시나리오	가속 시나리오
발전부문의 재생e (발전량 중 재생e)	69%*	54%	-
• 태양광 설비용량	592GW (연평균 48GW)	396GW (연평균 39GW)	471GW
• 풍력 설비용량	510GW (연평균 36GW)	290GW (연평균 17GW)	316GW
수송부문의 재생e (최종에너지소비 중 수송부문의 재생e)	32%*	16%	20%
냉난방부문의 재생e (최종에너지소비 중 냉난방부문의 재생e)	'30년까지 연간 2.3%p씩 증가	'30년까지 연간 0.9%p씩 증가	
산업부문의 재생e (최종에너지소비 중 산업부문의 재생e)	'30년까지 연간 1.9%p씩 증가	'30년까지 연간 0.9%p씩 증가	
건물부문의 재생e (최종에너지소비 중 건물부문의 재생e)	60%	32%	

* EU위원회가 REPowerEU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생에너지 비중 추정치이며, 냉난방·산업·건물부문은 REPowerEU에서 설정된 목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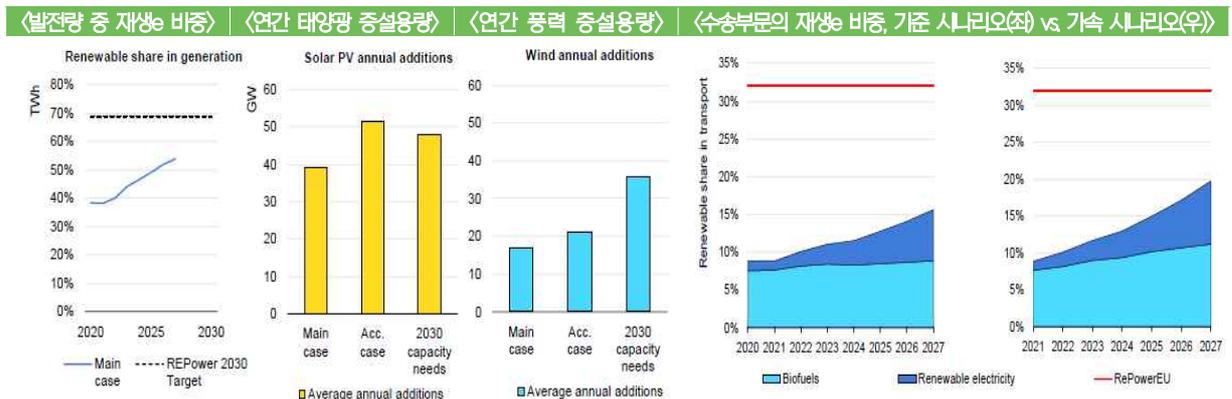
- (발전부문) 기준 시나리오에 따르면, 유럽의 태양광 및 풍력 설비용량 증가는 REPowerEU의 발전부문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69%)에 도달하기에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

- REPowerEU의 발전부문 목표 69%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태양광 설비용량은 592GW, 풍력 설비용량은 510GW이며, 이를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는 연평균 48GW, 풍력 발전설비는 연평균 36GW 증설이 필요
- IEA에 따르면 기준 시나리오에서 '27년 재생e 비중은 54%인데, 이는 REPowerEU의 '30년 목표(69%)보다 15%p 낮은 수치이며, 전망 기간 동안 태양광은 연평균 39GW, 풍력은 연평균 17GW 증설될 것으로 전망

- (수송부문) REPowerEU의 목표 달성이 수송부문에서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

- REPowerEU의 수송부문 재생에너지비중은 '20년 9%에서 '30년 32%에 도달하는 반면, IEA의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27년 16%(가속 시나리오, 20%), '30년 20%(가속 시나리오, 29%)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REPowerEU 목표치와 IEA의 발전 및 수송부문 목표치 전망 비교〉



- (냉난방부문 등) IEA의 분석 전망에 따르면, EU의 냉난방·산업·건물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REPowerEU의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IEA는 냉난방 및 산업 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30년까지 모두 연평균 0.9%p씩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추정하였고, 건물부문도 REPowerEU의 목표치보다 훨씬 낮은 32%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공급망 소식통 : 2023 GP 유럽 참가기업 모집 안내

KOTRA는 '35년부터 EU 내 내연기관차 판매금지로 인한 전기차 시장 확대 및 공급망 재편(배터리, 반도체 등)에 따른 우리 기업의 기회 선점을 위해 한국-독일 양국 간 미래산업 협력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미래차 분야 전반(경량화소재, EV용 부품군, 자율주행, ADAS 등 관련분야)에 관련된 온·오프라인 상담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모집 개요

① 오프라인 상담회

- 일시/장소 : '23.6.28(수) / 프랑크푸르트 상공회의소 건물
- 분야 : 미래차 분야 전반(경량화 소재, EV용 부품군, 자율주행, ADAS, 반도체 장비, 비메모리분야 등)
- 규모 : 국내기업 20개사, 바이어 20개사
- 방식 : 상공회의소 제공 1:1 상담장 운영
- 신청 방법 : KOTRA 홈페이지 접속([클릭](#)) → 사업신청 → '2023 GP 유럽 오프라인 상담회' 검색

② 화상상담회

- 일시/장소 : 6월 중 (1개월 간 진행) / 온라인
- 분야 : 미래차 분야 전반(경량화 소재, EV용 부품군, 자율주행, ADAS, 반도체 장비, 비메모리분야 등)
- 규모 : 국내기업 40개사, 바이어 30개사
- 신청 방법 : KOTRA 홈페이지 접속([클릭](#)) → 사업신청 → '2023 GP 유럽 화상상담회' 검색

■ 참가 신청 안내

- 모집 기간 : (오프라인 상담회) '23.5.4(목) 18:00 마감
(온라인 상담회) '23.5.26(금) 18:00 마감



〈오프라인 상담회〉



〈화상상담회〉

- 사업참가 선정 결과 발표 : 6월 초 이메일 안내 예정

- 참가 비용 : 무료

- 문의처 : (독일)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ekshin@kotra.or.kr)
(한국) KOTRA 소재부품장비팀(02-3460-7640 / jiheon@kotra.or.kr)

○ 공급망 소식통 : 한국무역협회 지원사업 소개

■ 2023년도 전문무역상사 신규 모집

- ▶ 개요 : 내수 및 수출초보 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해 매칭·수출보험·마케팅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
- ▶ 모집규모 : 150개社 내외
- ▶ 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전문무역상사 사무국 (☎ 02-6000-5451, 5575, 5219)

- 지정 기간 : 2023년 7월 ~ 2026년 6월 (3년)*

* 2023년 전문무역상사 지정일로부터 2026년 신규 전문무역상사 지정 전일까지

* 단, 전문무역상사 지정일로부터 2년 후에 지정 자격유지를 위한 평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정 취소 가능

- 지정 절차 : 서류심사(~'23.06.21) → 심사위원회를 통한 최종 선정('23.06.30 예정)

- 지원 자격 : '2023년도 전문무역상사 지원 자격 안내(필독)' 확인 후 지원

- 신청 방법

- 접수 기간 : 2023.04.18.(화) ~ 2023.05.31.(수) 24:00까지
- 작성 방법 : 전문무역상사(ctc.kita.net) 또는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에서 작성
- 제출 서류 : '제출서류 안내(필독)' 확인 후 자격요건별 필요서류 제출 (신청서 작성 시 첨부파일 업로드)

■ 2023년도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사업

- ▶ 개요 : 중소기업에 지식재산권, 해외인증 관련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
- ▶ 대상 : 지식재산권 또는 해외인증 관련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전국 중소기업
-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FTA기업지원실 (국번없이 ☎1380)

- 비관세장벽 콜센터(☎1380)

- 내용 : 지식재산권 및 해외인증 전문가와의 전화상담(즉시·기초 상담)
- 운영시간 : 월~금 9:00~18:00(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현장방문 컨설팅

- 내용 : 변리사 및 해외인증 전문가가 직접 신청기업을 방문(1~4일)하여 맞춤형 심층 컨설팅 제공
- 신청방법 :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okfta.kita.net) 접속 > FTA컨설팅 클릭 > 비관세장벽 컨설팅 클릭 > 해외인증 또는 지식재산권 컨설팅 중 선택하여 신청

글로벌 경제지표(23. 5. 3. 수)

[환율]

	'21말	'22말	'23.4말	5/1	5/2	5/3	전일비	22말비
₩/U\$	1,188.80	1,264.50	1,337.70	1,337.70	1,342.10	1,338.20	△0.29	5.83
선물환(NDF,1월물)	1,190.00	1,265.30	1,336.60	1,336.60	1,339.30	1,336.10	△0.24	5.60
₩/CNY	186.51	181.44	193.37	193.61	193.89	193.18	△0.37	6.47
₩/Y100	1,032.48	945.56	989.42	989.42	975.65	983.68	0.82	4.03
Y/U\$	115.14	133.73	135.20	135.20	137.56	136.04	△1.10	1.73
U\$/EUR	1.1318	1.0617	1.1010	1.1010	1.0987	1.1017	0.27	3.77
CNY/U\$	6.3681	6.9630	6.9147	6.9147	6.9110	6.9110	0	△0.75

* '22년 평균 환율: (₩/U\$) 1292.2원, (₩/¥100) 983.8원, '23년 평균 환율('23.1.1~현재): (₩/U\$) 1289.0, (₩/¥100) 971.0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2년 최저(해당일)	'22.12.31	'23.4.28(전일)	'23.5.2	'23.5.2			
					전일비(4.28)	'22년최저비	'22년말비	
원유(두바이)	71.83(12.12일)	78.77	79.73	78.61	△1.1 △1.4%	6.8 9.4%	△0.2 △0.2%	
철광석	79.50(10.31일)	117.35	106.50	106.40	△0.1 △0.1%	26.9 33.8%	△11.0 △9.3%	
비 철 금 속	구리	7,000.00(7.15일)	8,387.00	8,571.00	8,573.00	2.0 0.0%	1573.0 22.5%	186.0 2.2%
	알루미늄	2,080.00(9.28일)	2,360.50	2,342.00	2,353.00	11.0 0.5%	273.0 13.1%	△7.5 △0.3%
	니켈	19,100.00(7.5일)	30,425.00	23,770.00	24,235.00	465.0 2.0%	5135.0 26.9%	△6190.0 △20.3%

[반도체]

	'21	'22	'23.1월	'23.2월	'23.3월	4/28	5/1(휴장)	5/2	5월(~2)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1.93	1.83	1.71	1.62	1.62	1.62	1.62
(%, YoY)	29.9	△23.0	△48.2	△52.9	△55.5	△52.9	△52.9	△52.9	△52.8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51	6.46	6.42	6.40	6.40	6.40	6.40
(%, YoY)	14.7	10.7	△13.7	△15.5	△18.7	△22.4	△22.4	△22.4	△22.4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12.30	'23.4.7	4.14	4.21	4.28	전주비(4.21)		'22년말비
SCFI	5046.66	1107.55	956.93	1033.65	1037.07	999.73	△3.6%		△9.7%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12.23	'23.4.6	4.14	4.24	4.28	5.2	전일비(4.28)		'22년말비
BDI	2217	1515	1560	1435	1517	1576	1552	△1.5%		2.4%



뉴스레터를 만드는 사람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한국무역협회(KITA) 공급망분석팀	김 경 훈 김 희 영 박 가 현 도 원 빈 최 수 빈 허 슬 비
KOTRA 글로벌공급망지원팀	이 병 옥 신 재 훈 이 윤 지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미래전략연구팀	석 주 현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구독>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피드백하러 가기 :

<https://forms.gle/sftFKhLd4Xh49pxu9>

<피드백>



주관기관



협력기관

